

투데이 칼럼

바이오헬스 산업과 식품 그리고 건강

바이오헬스 산업! 뉴스나 정치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이나 미래구상을 발표할 때 보면 반드시 거론되는 단어이다. 일반인들은 그냥 바이오(Bio)와 헬스(Health)의 합성어 정도로 받아들이고 나와 우리 가족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나 싶듯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어찌 보면 당장 와 닿지 않으니 막연할 수도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는 물론 식품, 화장품,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등 생명과학 기술(Biotechnology)과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의 통합 분야이다. 다양한 기술이 융, 복합되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각자의 길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위에서 거론한 산업과 기술이 상호 보완되면서 컴퓨터, 시를 기반으로 건강에 대한 지식, 인식과 방법론을 세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롭게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질병과 질환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론과 기술적으로는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식품과 운동을 어떻게 접목시켜 실생활에 일반화하느냐'가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환경을 거치면서 건강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고양되었고, 운동방법론도 찾고, 먹는 것도 예전보다 관심이 높

아졌다. 건강식품이라는 것에 대한 조예도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알맞은 식품이 무엇이며, 얼마 만큼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개별 제품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었던 건강기능식품도 소비자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반영하고 영양소의 구성이나 함량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조합, 소분, 포장판매도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운동의 종목, 운동량, 운동강도 등 각자 건강상태에 따른 운동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식품도 병행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진보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바이오 분야의 역량이나 인터넷 수준도 다르기에 공통적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그래도 그 방향성만은 같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과 식품영양 분야의 융, 복합은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 운동을 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무병장수에 대한 강한 열원 등은 식품과 영양의 과학화, 정밀성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IT와 손을 잡으므로써 현실적인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트남 독립 80주년, 행진하는 군악대



2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독립 제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베트남 군악대가 행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호찌민 주석이 1945년 9월 2일 하노이 비엔관장에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급식소에 앞다뒹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들



1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한 급식소에서 구호 음식을 받으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앞다뒹 모여들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채 상병 발신번호 02-800-707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직전 02-800-7070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팀에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걸려온 전화는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2023년 7월 31일 11시 54분에 02-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 48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기밀 보안 사항"이라며 발신자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해당 통화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57분, 이 전 장관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을 보

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은 계속 제기돼왔다. 이 전 장관도 의문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전해 잠시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단장을 빼라거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 같은 건 없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사실을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당시 경제안보비서관, 당시 국가인보실 외교비서관 등의 진술로 확인한 상황이다. 격노 직후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VIP 격노설'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불을 붙인다.

전북특별자치도 통일대장정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전북특별자치도 통일대장정'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별관 공영장에서 도내 각계 지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슬로건은 '광복 80주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원, 신통일한국을 향한 평화의 발걸음'이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 도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심리적인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지 살포, 한미군사훈련 등 3가지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방송과 살포를 먼저 중단하여 긴장 완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피스로드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다. 피스로드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 국경과 이념, 세대를 넘어 전 인류를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

동의 여정이다. 이제는 '강대국'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의 시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야 할 때이다. 피스로드 운동을 통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의 통일대장정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대장정을 통해 내딛는 작은 걸음걸음이, 훗날 미래세대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전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심각한 대치국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통합이고 융합이다. 피스로드는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적으로 담벼락을 허무는 운동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